

천안오성고, ‘제2회 천안 학생 로봇대회’ 전종목 휩쓸어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고 천안오성고등학교

천안오성고등학교(교장 장호중)는 지난 16일,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천안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제2회 천안 학생 로봇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중점반 2학년 김도영 외 16명의 학생들이 ‘로봇축구’(9명), ‘해커톤’(6명), ‘로봇윤리토론’(2명)에 참여, 로봇축구 은상과 동상, 해커톤 부문에 금상과 은상, 로봇윤리토론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해커톤 부문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로봇축구’는 학생들이 직접 축구 용 로봇을 조립하고 스마트기기를 연결해 제어해 5분간 상대방 골대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우승하는 경기이고,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제한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는 대회다. ‘윤리토론’은 인공지능과 로봇분야에 대한 윤리문제를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회이다. 입상한 학생들은 “평소 로봇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것이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장호중 교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로봇과 인공지능 교

육은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천안오성고 인공지능(AI) 중점반 학생들이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연 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전화 친절도 향상 위해 앞장



▲ 왼쪽부터 윤진호주무관, 현진희 장학사, 홍현주 주무관, 장연화 주무관, 강민정 장학사)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재)은 공직자 전화 친절도 향상을 통해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교육지원청은 전화친절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화 친절도 응대 매뉴얼 배부 △전화 응대 방법 교육 △전화친절도 자체 모니터링 등 전화 친절 수준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단이 직접 직원들에게 민원 전화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 요청하고 우수한 점수를 받은 직

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전화 친절도 향상을 도모했다. 우수 직원 윤진호 주무관은 “전화 친절도 향상을 통해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용재 교육장은 “전화친절도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얼굴이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앞으로도 교육가족들이 신속 정확한 전화응대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정진 기자

서산교육지원청, ‘아빠교실 가족글램핑’ 진행

가족들과 밥상머리에서 고민을 나누어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은 지난 5일·6일, 하반기 아빠교실을 수료한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하반기 아빠교실 가족글램핑’을 진행했다. 이번 가족글램핑은 지난 10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3회 진행했던 ‘최강의 자녀교육법, 아빠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아빠교실 교육내용인 밥상머리교육 실전을 위해 마련됐다. 장우현 교육장은 “옛날에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교육이 이뤄졌지만, 요즘은 맞벌이 가정 증가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밥상머리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글램핑을 통해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누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밀집도 최소화화를 위해 2차례로 나눠 오는 11월12·13일에도 실시한다. /김금희 기자

예산교육지원청,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추안)은 지난 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추안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과 관내학교 교직원 등 40여명이 예산군 응봉면 과수농가 두 곳을 방문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품질의 사과가 출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봉사활동시 마스크 착용, 작업 간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도구, 간식과 음료수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최용관 기자

안면중학교,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해 배우는 영어

함께하는 해피할로윈

안면중학교(교장 엄재용)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협력 수업 시간 및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해피 할로윈 체험 수업 및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양 어린이들이 매년 즐기는 할로윈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 함양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며 궁극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할로윈의 유래와 할로윈과 관련된 다양한 영어 표현을 알아보며 역할극 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을 직접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9일 해피 할로윈 행사일에는 영어 도우미 학생들이 사탕 바구니와 함께 가면, 망토 모자 등을 착용하고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상품을 나눠 줬다. 행사장에서는 학생들이 할로윈 문화와 한국 전통놀이를 융합한 다양한 게임에 참여했으며, 할로윈 분위기에 맞게 꾸며진 포토부스에서 다양한 상품을 착용하며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참여 학생 모두 할로윈 퀴즈 대회에 참여해 할로윈 문화와 관련된 영어 퀴즈를 풀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안면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해피 할로윈 체험 주관을 통해 서양 문화 행사의 유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음은 물론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즐겁게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을 연마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이재필 기자

옥천여중, 동극 공연으로 마을 어린이집에 재능 기부

옥천여자중학교(교장 박정애) 1학년 학생들은 지난 3일, 2019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동극(어린이극) 공연을 지역의 유아 기관에서 펼침으로써 배움을 마을에 기부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동극은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1학년 7개 학급이 마을의 유아 기관 7곳을 선정해, 토끼와 자라(별주부전), 환경보호 2가지 내용으로 국어 시간에 대본을 작성하고 미술, 음악, 체육 수업 등에서 소품, 무대 장치, 음향, 연기 연습이 이뤄지는 교과통합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옥천여자중학교가 탄소중립 학교로서 동극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용기를 구하는 토끼, 친환경 주택을 짓는 아기돼지 삼형제, 환경파괴 요정에 맞서는 뱀침 요정의 활약 등 다양한 내용을 재미있고 즐겁게 공연

해 지역의 유아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사를 미리 녹음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열심히 공연하는 학생들 앞에서 마을 어린이들은 동극에 집중하며 함께 노래 부르고 마음껏 박수쳤다. 토끼와 자라편에서 용왕을 맡은 한 학생은 “유치원 동생들 앞에서 한 공연이라서 더 친근감이 들었고, 친구들과의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성숙해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교관계자는 “마을협력교사의 전문 지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마을의 유아들에게 의미있게 발휘하고, 마을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 배움이 나눔이 되고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뜻깊은 공연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진천교육지원청, 생겨진진‘Edu-ON’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은주)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겨진진 ‘Edu-ON’진로진학 박람회를 지난달 30일 (13:00~17:00) 상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시간대별 사전 신청 인원을 조정해 진학 상담 및 체험이 진행됐다. 박람회 운영 내용으로 첫 번째, 진로 마당(전문가 직업 체험, 대학교 학과 체험 및 상담 부스 6개), 두 번째 진학 마당(선배 멘토들을 통한 대학교 학과 소개·진학 상담 및 계열(학과)별 특강 부스 7개)으로 구성해,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고등



▲ 소방행정학과체험

학생 학부모로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매년 대학입시와 진로에 도움을 주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중 기자

홍성고 2학년 이원경 학생 전국자유과학탐구대회 은상 수상

홍성고등학교(교장 이기세) 2학년 이원경 학생이 2021 전국자유과학탐구대회에서 은상(3위)을 수상했다. 이원경 학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한 레이저 커뮤니케이터 제작’이라는 주제로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해 2021 전국자유과학탐구대회 일반고등학교 부문에서 은상을 거머쥐었다.

평소 항공 우주 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이원경 학생은 관련 기술에 대해 알아본 중 우주 공간에서 유선 회로 연결 없이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레이저 커뮤니케이터’에 관한 영상을 접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느꼈다. 지구과학 교사인 이해민 선생님과 이야기 학교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탐구를 시작했다.

2021년 3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 전환, 열역학 제2법칙 등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면서 탐구 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으며 탐구를 설계했다. 당시 한국에는 레이저 커뮤니케이터와 관련된 안내 자료가 없어 주로 해외 영상 및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고, 실험 과정에서 여러번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물리학에서 다루는 회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앞서 학습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험 변인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휴대전화에서 방출된 전자기적 신호(음원)를 회로도를 통해 LED 빛으로 전환시키고, 이 빛을 태양 전지판으로 받아들여 스피커를 통해 방출하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5월 충남자유과학탐구대회에 이어 8월 전국대회에서



도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원경 학생은 “이번 탐구 활동을 통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하 그렇구나!’로 바뀌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이저커뮤니케이터 탐구를 통해 미래 인류의 우주 진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에 아쉬운 도전이었던 나로호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항공 우주 과 학도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해민 지도교사는 “이번 탐구 활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의 역학적 에너지 단위부터 고등학교 물리학1, 2, 그리고 화학2의 물질의 변화 단원에서 다루는 과학적 개념을 포괄하는 탐구 실험으로써, 관련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도입 활동으로 적절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원경 학생이 전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고등학교는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갖는다. 홍성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학생 진로 맞춤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수 경로를 지원한다. 홍성고등학교에 관심이 있는 중3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라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정진 기자

보은 동광초, 대추송첼린지 영상대회 1등 수상

동광초등학교(교장 박종훈)가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이 ‘2021.보은대추송첼린지 영상대회’ 제1작했다.에서 1등을 수상하며 문화예술활동의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줬다. 보은대추송첼린지 행사 중 하나인 이 대회는 보은군에서 제작한 ‘보은대추송’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보은 대추를 주제로 동광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은대추송’을 즐겨 부르며 울동부 터 코믹한 상황극, 카드섹션, 난타 등 창의적인 장면을 구상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동안 짧은 기간 내에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찍었다. 특히, 촬영 기간 동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코믹한 상황에 스스로없이 출연했고, 보은군의 ‘참송아유와 합성된 보은대추 이미지 제작·드론 촬영 등 교사들의 기술을 맘껏 발휘했다. 동광초 한 교사는 “모두가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런지 학교가 축제 분위기이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보령교육지원청 우정더하기 다섯 번째 이야기를 쓰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하)은 지난달 30일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1 우정더하기5’를 운영했다. 우정더하기5는 21학년 학습 멘토링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3일은 대전초, 한내초, 대전동대초 그리고 멘토 대전여고 학생 43명이, 30일에는 대전중, 대전여중 학생 17명이 참석해 운영했다. 보령상상이룸센터를 방문한 학생들은 VR을 비롯한 드론코딩, 로봇축구, 목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적 활동을 하며 답답했고 온라인 학습이 나에게 너무 어렵기만 했었다. 학습멘토링은 나에게 부족

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고등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마지막 순간을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하 교육장은 “후배들의 학습 보충을 위해 노력해 준 멘토 학생들과 기간 꾸준히 책임감 있게 참석해 준 멘티 학생들 모두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상상이룸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추구하고, 서로 어울림 속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를 바라셨다. 이에 학생들에게 2021년 한 해 동안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명의 학생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종복 기자